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10월 11일 (제137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하나님께 물어라

나는 신학교 강의 때 이렇게 말했다.
“목회가 성장하려면 AI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요즘 참 편리한 세상이다. AI에게 부탁하면 웬만한 건 다 해준다. 당연히 목회자들의 숙제인 설교도 AI가 써준다. 그것도 잘,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목회자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의 설교가 쉬운 일은 아닐진대, AI가 제목만 대면 척척 써주니 설교 때문에 밤새며 낙타 무릎이 될 필요가 없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설교에서 완전히 해방된 세상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써준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다. AI가 써준 설교문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성령으로 감동되느냐. 당연히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길 원하신다.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에 파고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AI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AI의 종이 된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AI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듯 그 종을 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교단의 주의 종들과 신학생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목회 성장은 성령의 인도함에 있다. AI가 요약한 것을 전하지 말라. AI가 요약한 것을 전하면 AI의 종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말씀을 받아 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어떤 성도는 ‘편찮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인가, 병을 털어내고 살아날 수 있을까’를 AI에게 물었다. 아니, 그걸 왜 AI에게 물어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건 차마 믿는 자로서 점쟁이에게는 못 가고 AI에게 점쳐달라는 것 아닌가.
AI는 인간이 만든 편리한 도구일 뿐이다. AI가 다 해 준다고 AI를 하나님 자리에 댈 한이 없애 놓으면 큰일 난다. ‘만능’이 ‘전지 전능’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AI보다 지각에 뛰어나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께 기도로 아뢰라. 그가 도우시리라.

우리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와 남북 평화통일, 이 두 가지가 목사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번 청주 무심천 전도집회에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한 것은 이미 12차에 걸쳐 진행해왔던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에 장소만 허락한다면 13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나지 않고 있는 참에,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이라는 야외광장에서 집회가 열리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루였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2~14). 이제 다음 주면 또다시 우리는 미국 서북부 워싱턴(Washington)주의 시애틀(Seattle)과 남부 텍사스(Texas)주의 휴스턴(Houston), 두 도시 집회를 위해 떠납니다. 장소가 어디든 목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 살 아게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갇갇한지라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준 것입니다(행19:1~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을 고치며 성령을 부어 주는 사역이야말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요, 열두 제자들, 칠십 인의 제자들이 수행한 사역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눅10:8~9). 또한 이것이 목사님께서 40년 넘게 변함 없이 수행해오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여 이번 청주에



미국 새크라멘토 집회 광경

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복음 전파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남북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마치 섬나라처럼 고립된 채 대륙으로의 육로 진출이 막혀있는 처지 아닙니까? 남북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육로를 통해서 멀리 서유럽까지 달려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평양의 김일성광장이나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평화국이 한반도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

성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가장 성경적인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만 임하면, 그리고 그들이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간다면,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 받은 그 영혼들을 통해 하늘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이기에 이것이 우리 선교사역의 처음과 끝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26).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서도 성공적인 작품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일들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랑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길이 이것인 줄 알기에 이름도 빛도 없이 목사님을 따라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청주 무심천 전도집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에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보상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미국 시애틀 & 휴스턴 집회

2026년 10월 17일(토)~ 28일(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렘38:17~21)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 자존심을 버려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살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왕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렘38:19).

왕이라면 당연히 국가와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건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건만, 시드기야는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하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거듭 권면했지만, 시드기야는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불탔으며,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하들까지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왕하25:7).

시드기야는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 왕권도, 자식도, 나라도, 두 눈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후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겔16:6).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살고 불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살고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목숨뿐 아니라 국운이 달린 판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K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조선업, K푸드, K뷰티, K드라마..., 대한민국 것은 뭐든 좋게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살기 위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며 차관을 들여오고 원조를 받았고요. 우리를 36년 동안 강점했던 일본에도 손을 내밀며 차관을 요청했었습니다. 자존심 많이 상하죠. 그런데도 한 국가의 자존심,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

놓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어 이렇게 성장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를 향해 큰소리도 치고, 남을 도와주는 원조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존심, 자존감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존심 잠깐 내려놓아서 목적을 이룬다면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위대한 여인인지 압니까? 예수님께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딸아이만 고치면 된다는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 귀족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여인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그런 여인이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존심을 내려놓더니 예수님께 인정받고 딸을 고침 받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을 버려 딸이 고침을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쟁기고 돌아가 평생 병든 딸의 병수발 드는 게 낫습니까? 낮고 봐야죠. 살고 봐야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보세요. 그는 유산을 앞당겨 받아 세상에서 뱅뱅거렸지만, 결국 다 탕진하고 굶어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살아야겠다. 살고 보자!’ 하고 자존심 버리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베풀었지요(눅15:11~24).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도 보세요.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줄 만한 사람은 어느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재판관이 안하무인이라. 그러니 힘 없고 돈 없고 뺨 없는 과

부를 돌아보거나 했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과부도 자존심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존심을 쟁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런 재판관도 지쳐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럼요, 소원을 이루고 봐야죠.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떡을 강제한 친구도 자존심을 내던졌기에 목적을 이룬 것 아닙니까?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아시죠? 엉덩이에 종기가 난 여자 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고 하자 남자 의사인 터라 두 여자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

자는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치료해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망측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병원을 나왔고, 종기가 악성으로 발전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성경에는 자존심 내세우다 인생 종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주자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치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옵니다. ‘모든 소유를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삼상 15:15).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울은 자존심 쟁기기에 급급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찌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 15:30).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패위한다

는데 자존심을 쟁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비참한 말로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놓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잘못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처를 범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바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왜 그들은 자살을 할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중 하나가 땅에 밟힌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이러고 어떻게 살아?’, ‘남들을 어찌 봐?’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말 삼 일 안하는데 말입니다.

자존심은 순간이나 꿈은 영원하다

여러분,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살아야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살면 떨어진 자존심을 쟁길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존심 쟁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목적 앞에서 자존심을 헌신짝 버리듯 하셨는데, 우리 자존심이 좀 밟히면 어떻게습니까? 자존심 지키려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인생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피해 자살했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 말입니다.

저는 일찍이 자존심을 기도원에 물어버렸습니다. 목회 42년이 어찌 평탄했겠습니까? 속에서 풍물이 올라오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교단의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교단의 이미지가 훼손될 상황에서는 그 목회자 대신 상대방에게 무릎 꿇은 일도 있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는 무조건 판사 앞에서 읍소를 했던 일도 있습니다. 살아나와야 하니까요. 그게 사내답지 못한 일입니까? 자존심이란, 스스로 자(自), 높을 존(尊), 마음 심(心)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목적을 위해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채권자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세요. 모르면 아이에게도 ‘가르쳐 달라’ 하세요. 당장 없으면 ‘좀 달라’ 하세요. 살아나서 갚으면 됩니다.

자존심은 성공으로 가는 길, 목적으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입니다. 그 말라빠진 자존심, 버려버리세요.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경배와 찬양 ::

오늘 최선을 다하자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엘리에셀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바르게 살고, 언제 마음의 결단을 바르게 내리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했지만, 랍비는 옳다 여길 만한 답이 없어 직접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죽을 것처럼 생각할 때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산단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헛된 것에 마음을 빼기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결단을 미루거나 그릇된 선택을 하곤 한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일이라는 막연한 여유 때문에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불살라 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의 나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 시간부터 앞의 쫓대를 향하여 나가면 영·혼·육의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빌3:13~14).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신 적이 있으셨다. 거기서 아들이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들의 머리를 탕 속으로 밀어 넣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누르셨다. 아들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아서 발버둥을 치다 온 힘을 다해 목

사님을 뿌리치고 일어나서는, “성공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죽일 작정입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그때 목사님께서 “네가 성공하려면 지금처럼 매사에 사력을 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다고 한다.

의외로 사람들은 성공을 막연히 재수가 좋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배움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것들은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일 뿐, 결국 성공은 나의 결단과 노력과 기도에 있는 것이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원군의 패배로 조선 수군은 단 12척의 배만 남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순신 장군은 그 명령이 조선의 바다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선조에게 유명한 장계를 올렸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전함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아니하였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군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모든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결국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뒀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절대 돌릴 수 없다. 오늘이다.

장영국 목사

:: 신앙논객 ::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1930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안톤 라베이는 다섯 살 때부터 바이올린, 드럼, 트롬본, 오보에, 피아노, 오르간 등 다양한 악기를 섭렵하면서 쓰임 받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랬던 그가 청년 시절,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인간의 사악한 면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1966년에 급기야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교회를 창설하게 된다. 그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거기에는 동성애자만 백만 명이 있다고 한다. 사탄 교회에는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복창하는 구호가 있는데, “사탄이 우리의 구원자다”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Live your life the way you want)”, “너 자신을 경배하라(Hail Yourself)”다. 즉,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가 아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고 깨뜨리기 어려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나 사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거부한다. 다니는 교회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자주 가는 식당을 바꾸듯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

도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은혜롭고 좋은 설교고,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듣기 거북하면 설교자로부터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다. 기도도, 찬송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키지 않거나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섬기는 것이다.

구약성경에는 성막과 성전의 양식과 구조, 그리고 그 부속물들에 대한 자세한 규격과 사용법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정하신 대로 제사(예배)하지 않으면 불이 내려와서 제사장들을 사르기도 했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예배를 집전하거나 성물에 함부로 손을 대면 하나님의 진노가 민족 전체에 임하기도 했다. 성전의 등불도, 드리는 제물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점검하고 올려드려야 했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고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됐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고전3:16),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 된 나의 삶을 꾸며야 하지 않을까.

신혁주 전도사

오늘 시작해라, 시작이 반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錐)’

이시대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는 사자성어입니다.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 속에 넣어도 주머니를 뚫고 나오겠다는 이야기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능력이 저절로 드러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런 이시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오늘 시작해라, 시작이 반이다.’라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이 둘이 너무나 찰떡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가 날카로운 송곳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는 연마가 필요하듯, 우리 삶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날카로운 송곳, 곧 실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그러한 갈고닦음이 필요합니다.

그 갈고닦음을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해냈든지, 그렇지 못했든

지 간에 그것들은 모두 나를 한 번 갈고 닦는 것이 됩니다(롬5:3~4).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조금씩 영어 공부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는 습관을 다시 들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미 너무나 발전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AI 실무 관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당장 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저를 갈고닦는 것이죠.

그러니 목사님의 말씀처럼 망설이지 말고 오늘 시작해보세요! 망설이고 있는 그 일, 도전을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결과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의 삶의 연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낭중지추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욥23:10).

윤에녹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이해 속에 넣을 수 없는 분

“만약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며칠 전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강한 어조로 언급하신 내용이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식(방법론)은 이해가 아닌 순종이다. 믿어야 순종하고, 겸손해야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 드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며 교만이다. 그런 이들에겐 성경도 더 이상 계시가 아니고 여러 고전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 성경의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내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이해는 잘되겠지만, 결국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경도되는 것이다(고후11:4).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성’이 순종의 영역을 넘어 타락하니 최악이 돼 버렸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만 금단의 열매에 손대어 버렸다.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신비의 영역을 경박한 호기심으로 탐구하려는 폐단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니, 영원한 무한의 계도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로 인생

이 돼버렸다. 아담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롬5:12).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일이니, 그 예수를 성경 속에서 온전히 발견하여 바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다.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어느 유명인사의 기독교 교리 설명이 화제다.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경적 삼위일체 교리를 해체시켜 버렸다. 하나님을 이해시키려다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관문부터 무너뜨렸다. 한 사람의 변칙이는 아이디어가 수천 년 기독교 전통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있어 왔던 시도들이다. 대체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다. 자신의 이성(이해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신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능력이 절대적으로 틀림없다고 확신하니 하나님을 이해하기로 결단한 거다.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의 난제를 앞에서, 그 자체로 영감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하는데 말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겸손이며 사랑이다.

송직화 목사

:: 간증 ::

:: 빛이 되리라 ::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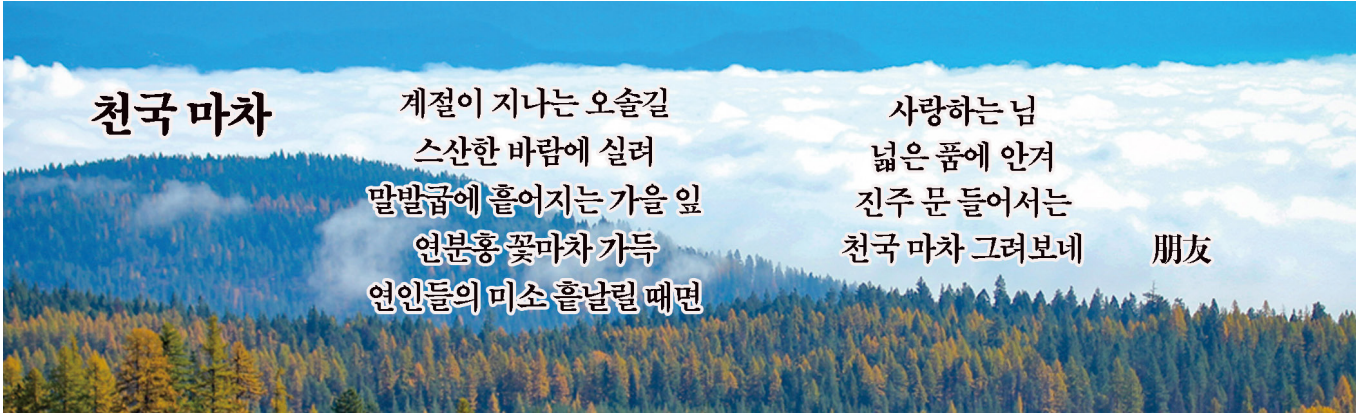


저는 2024년 3월, 대장과 위에 용종이 생겼다는 내시경 진단을 받고, 2024년 5월 경산 중앙병원에서 용종 제거 수술 뒤 조직검사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1년 정도 혈변이 나왔으나 무시한 결과였지요. 수술 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요양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어 김해 센텀병원 신경외과에서 각종 검사 결과, 뇌경색·치매·대장암·고혈압·고지혈증·갑상선·간·콩팥 수치가 너무 높고..., 그래서 지방종 수술

도 하고 각색병 17가지 종합병으로 2년여 투병을 했답니다. 지금 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 성경적 기도(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로 병원과 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는 몇 달 뒤 중풍이 올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검사 진단만 받고, 더 이상 병원 약은 다 거절하고 오직 지인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저의 성경적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만 골라서 고치십니다. 불치병 의사가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한 병들을 병원에 의지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돈만 낭비하며, 고통만 받다가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라고 했지만, 나는 ‘가도 내 발로 간다’ 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만드셨으니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만 하니 2년여 만에 환경과 결의 사람이 바뀌고, 이를 만에 좋아지기 시작해 지금은 기적의 주인공이 나타났다고 수

군거린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십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사 채찍에 맞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병에서 모두 해방을 받고 낫습니다. 이 성경적 기도로 의사가 포기한 뇌경색·치매·대장암 말기 등 17가지 병마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찾고, 지금은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이십니다. 모든 걸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고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찢을 때가 있으면 짜매 주시기도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진실된 간증에 힘내시고 저를 모델 삼으셔서 모든 병에서 해방 받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귀신을 추방하소서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만 목사



천국 마차

계절이 지나는 오솔길
스산한 바람에 실려
말발굽에 흠여지는 가을 잎
연분홍 꽃마차 가득
연인들의 미소 흠날릴 때면

사랑하는님

넓은 품에 안겨
진주 문 들어서는
천국 마차 그려보네

朋友

:: 주님을 향한 노래 ::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4:8). 낳아주신 부모님은 혹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릴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사49:15~16). 그분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릴 끊을 수 없습니다(롬8:39).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읽어갈 때쯤, 제게 드는 솔직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인도해주셨는데, 특하면 불평 불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찾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당장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사랑에 눈먼 바보처럼 그런 이스라

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다 응답해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켜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주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예수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이 작심삼일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도로 눕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요(요3:16).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아버지께 드리기로 작정하셨고, 아버지는 눈물로 그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릴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요일4:9~10).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

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바로 창기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함께 자식 셋을 낳고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를 즐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음한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서라도 데려와 사랑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릴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호세아는 고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합시다. 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며,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호민 전도사

늘 깨어서 점검하자

예전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서 일했고, 운동도 거의 하지 못했었고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가 결국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한참 고생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세를 교정하거나 운동하거나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누군가는 ‘운동해야 한다. 자세 똑바로 해야 한다.’ 말해주었을 텐데 말이죠. 눈과 귀가 가려진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할까요? 당시 바쁘고 멀다는 핑계로 수요일에배도 잘 못 나가고, 저녁에 기도도 충분히 못했던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지 않았던 때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고쳐 나가게 하셨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받길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문제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죠. 문제는 나중에 터집니다. 그래서 깨어서 점검하며 문제의 싹을 애초에 잘라내야 합니다. 결국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시간 내어 기도하고,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성령 충만을 잃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귀의 밥이 된다니요. 기도가 멈추고 기도의 양이 줄 때, 우리는 이런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죠. 물론 잘 안되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늘 깨어서 점검합시다.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구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랑진 교육관 기도회

노랑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